

## 慶州는 重患者이다

秦 弘 燮(前 이화여대 교수)

### 차 례

1. 慶州는 千年古都이자 新羅文化의 寶庫이다.
2. 慶州는 重患者이다.
3. 重症의 診斷
4. 重病의 治療

### 1. 慶州는 千年古都이자 新羅文化의 寶庫이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따르면 慶州는 BC 57년에 일어나 서기 935년 高麗에 항복하기까지 천년동안 한결같이 新羅의 王都였으며 新羅의 全時代에 걸친 모든 文化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징표가 경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고 또 그것을 자랑삼아 왔다. 그러한 사실은 매우 빈약하지만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記錄 또는 현존하는 地上의 유적과 발굴된 유물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地上의 유적이나 유물로는 皇龍寺의 寺址, 佛國寺石窟庵에 전해오는 石佛·石塔·金銅佛·靑雲白雲 또는 蓮花七寶의 石造橋梁, 높이 4미터에 달하는 聖德大王神鍾 등은 片鱗이나마 新羅文化의 실상을 보여주는 例이고, 地下에서 발견되는 金冠을 비롯한 찬란한 副葬品들은 또한 新羅文化의 發達相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러한 유적이나 유물들, 또는 “寺寺星張塔塔雁行”이라고 한 당시의 佛敎文化, 또는 “民屋相屬”하고 “歌吹連聲”하며 “覆屋以瓦不以茅”하고 “炊飯以炭不以薪”하던 9세기 京都의 생활상 등은 이들을 단순한 사치와 퇴폐의 모습이라고 보아서 안될 일이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新羅의 思想·信仰·文學·美術·科學·經濟·習俗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 곳의 유적, 하나의 유물에 대하면서 文化가 어느정도 발달하였으면 높이 225尺의 皇龍寺의 九層木塔, 세계 屈指의 聖德大王의 神鍾, 또는 石窟庵이나 佛國寺 多寶塔의 구조 등의 걸작이 나타났을까 감탄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이미 세계의 先進文化와 접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自己文化 속에 흡수·동화 내지는 소화한 흔적마저 역력히 볼 수 있다. 掛陵의 앞에 있는 한 쌍의 武人石 또는 龍江洞古墳에 매장되었던 土偶에 나타난 신라인이 아닌 異邦人의 모습, 民家 밑에 깔려 封土마저 없어진 古墳에서 발견된 嵌玉短劍과 皇南洞大塚에서 발견된 提瓶과 杯는 분명히 西域에서 제작·사용하던 것들이며 특히 短劍은 東洋 어느나라에서도 발견된 예가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唐에 왕래하던 많은 僧侶, 印度巡禮로 알려진 惠超 등을 통해서 전해온 中國과 印度의 文化 또한 至大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新羅의 위대한 文化가 成立되기 까지에는 그에 앞서는 文化가 基盤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과연 月城·入室·朝陽洞 등지에서 발견된 先史時代 遺物을 통해 경주에는 新羅建國에 앞서 오랜 歷史와 文化를 형성한 사람들이 터를 닦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昔脫解왕이 吐含山에서 내려와 月城에 자리를 잡았을 때의 傳說을 한낱 허망한 것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며 이곳에 先史文化의 터전이 있었다는 一連의 事實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서 우리는 왜 慶州를 千年의 古都라고 하며 왜 新羅文化의 寶庫라고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地上에는 아직도 곳곳에 新羅文化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王京으로서의 흔적 또한 분명하다. 慶州市內는 물론 부근의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에 王京條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慶州市內는 물론 外廓一帶에는 무수한 古墳이 散布되어 있어 우물을 파다가 또는 호박구덩이를 파다가 우연히 金製귀걸이를 발견하는 일은 거의 慶州의 常識이 되다시피 하였고, 자기집 뒷마당에서 金冠을 盜掘한 事實은 아직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慶州는 地下 전체에 古墳을 비롯한 각종의 遺蹟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며 慶州를 新羅文化의 寶庫라고 일컫는 것이 과장이 아닌 사실임에 틀림없다.

## 2. 慶州는 重患者이다.

서기 935년 新羅에 대신하여 高麗王朝가 일어나면서 王都는 松都로 옮겨가 慶州는 閑寂한 마을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찬란했던 新羅의 文化는 같은 統治理念을 傳承하였던 新王朝에 의하여 어느 정도 關心의 대상이 되었으니 朝遊宮을 헐어서 皇龍寺木塔을 修理한 사실이 그 一例였다.

그러나 歷史의 수레는 사라진 王朝의 文化를 보호하지만은 않았다. 자연적인 훼손에 맡겨져 해가 갈수록 亡失一路를 걷는 것이 世情의 常道였으니, 朝鮮時代에는 지난날의 王都라는 인연으로 集慶殿을 세워 태조의 尊影을 奉安하기도 하였으나 統治理念의 差異는 慶州遺蹟을 자연적인 훼손은 물론 人爲的인 훼손에 放置하였던 것이다. 佛敎에 대한 無關心 내지 無知는 그것이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損失이 될 것이고 끝없는 빈축을 살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거침없는 손상이 이어졌으니 머리 없는 무수한 石佛은 그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또한 개인의 정원을 治粧하기 위해 遺蹟에 남아있는 石材를 옮겨갔으니 雁鴨池의 柱礎가 거의 다 없어져 당시의 규모를 복원할 수 없게 된

집도 그 一例이다. 이는 佛敎排斥이 그 근본적인 이유였으니 新羅의 遺蹟은 물론 전국의 사찰에 남겨진 유물은 文人墨客들에게 吟詩의 대상으로만 비쳤을 뿐 文化的 表現體로서 인식되지는 않았다. 佛國寺 多寶塔을 보고 天工이지 人工이 아니라는 감탄 이외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破壞는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를 後代에 심어주지 못하였으니 朝鮮時代의 無知에 더해서 自尊없는 有識한 사람은 有害한 지식을 동원하여 손상을 자행하였다. 이와같은 有識·無識의 파괴는 日帝強占期부터 자행되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그 흔적들이 慶州遺蹟의 到處에 남아있다. 多寶塔의 石獅子와 石窟庵의 五層石塔의 盜取는 지금 그 行방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연못 뒤로 迂廻하고 있지만 초기에 설치한 輕便鐵道는 雁鴨池 遺址의 北端을 통과하여 그로 인한 파손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겼으며, 철도는 다시 狼山에서 내려와 四天王寺·望德寺로 이어지는 由緒깊은 능선을 절단함에 따라 狼山과 연결되어야 하는 四天王寺의 北端을 잘라버리고 말았다. 묘사이의 述家가 狼山과 四天王寺의 사연을 안다면 필연 神聖視하던 狼山の 精氣를 끊기 위한 故意였다고 말할 것이다.

이보다도 잊지 못할 두 가지의 사례가 있으니 하나는 石窟庵의 改惡이요 하나는 盜掘의 助長이다. 石窟庵은 일제강점기 때인 1913·1917·1920년의 3차례에 걸쳐 완전해체까지 해가면서 수리를 하였으나 事前調査나 研究도 없이 일개의 土木技術者가 施工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가해져 彫刻의 표면은 風化되어 부수러져 떨어졌고 靑苔가 덮히는 현상이 일어났다. 光復後 뒤에서言及하는 바와 같이 다시 손상이 가해졌고 드디어 大的인 補修를 거쳐 구차한 施設까지 하였으나 新羅時代의 완벽하고 과학적인 배려가 있었던 石窟寺院의 설계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른 하나 盜掘의 참상은 매우 심각하게 작용하였다. 路邊의 一廢墳에서 홀연히 나타난 金冠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계속해서 金鈴塚·瑞鳳塚 등에서 또다시 金冠이 발견됨으로써 慶州의 古墳은 도굴의 대상이 되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도굴이 성행하였으니 金冠 발굴에 참여하였던 日人考古學者가 盜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당시의 總督府 政策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考古學의 初歩常識인 “盜掘은 破壞”라는 敎訓이 무색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대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市內의 곳곳은 물론 지방에서도 도굴을 자행하였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대로 學問研究를 빙자하여 버젓이 발굴을 자행하였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이러한 발굴로 학문연구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의심이 앞선다.

日帝強占期의 파괴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官 자체가 또는 官의 비호 아래 “朝鮮人”을 사주하여 전국적으로 자행되었으니 수많은 石佛·石塔이 慶州에서 반출되었고 심지어는 遠願寺·獐項里寺址의 石塔은 속에 藏納한 舍利具를 도굴하기 위해 폭파하기까지 하였다.

이와같은 파괴상은 지난 일로 체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파괴가 지금의 세대 즉, 光復後 우리가 책임지어야 할 시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먼저 우리의 至寶인 石窟庵은 일제강점기 때의 改惡으로 인한 後遺症이 점점 심하여 1947년과 1953년 2차에 걸쳐 긴급보수가

있었으나 그후 1957년에 이르러 最惡의 손질이 가해졌다. 당시 教育區廳이 靑苔除去를 위하여 고열과 고압의 수증기로 彫刻表面을 닦아낸 작업은 세밀한 조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 이 無謀한 작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책임질 일임에도 전혀 無感覺이었다. 다음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道路의 개설이었다. 당시 어느정도 王京의 面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自動車의 통행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遺蹟의 價値保存에 어느정도의 배려가 있었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불란서에서 壁畫洞窟의 保存을 위하여 地上의 通行動線을 극히 제한하여 좁은 통로 몇줄기 외에는 밟지 못하게 한 세심한 배려는 본받을 일이다.

이러한 사례는 깊은 배려없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와 반대의 사례가 있다. 즉, 佛國寺 釋迦塔의 相輪部 添加이다. 석가탑은 상륜부의 대부분이 상실되어 있었으나 대대적인 佛國寺 補修工事 때 南原 實相寺 石塔의 相輪部를 모방하여 新造添加하였던 것이다. 佛國寺 釋迦塔과 實相寺 石塔과는 그 建立年代에 약 100년의 차이가 있어서 兩塔 자체의 樣式 즉, 兩塔의 相輪部도 形式上의 차이가 있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異形의 塔身과 相輪을 연결하여 그 相輪이 原形인양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결국은 기만을 초래하는 결과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古都라고 口號같이 일러오는 慶州에 접근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風景은 고층아파트의 숲이다. 전에는 산더미 같이 늘어진 古墳群이 제법 古都의 印象을 강하게 풍기었으나, 지금 이들 구분은 아파트群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古都로서의 印象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過去의 榮華가 사라진 적막함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古都에는 주변의 山川과, 그 속에 안겨서 생활하는 사람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文化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新羅사람들이 왜 그의 遺骨을 南山 山頂에 묻었고, 왜 仙桃山 山頂에 거대한 三尊佛像을 조각하였으며, 月城을 싸고도는 蚊川에 왜 수많은 사랑이야기가 꽃피웠는지를 생각할 일이다. 아파트가 나날이 늘어나 숲을 이루고 나날이 높아져 文化의 寶庫인 古墳群을 묻어버리고 또 金剛山·仙桃山·金鰲山 등을 가려버리며 또 전설에 어린 蚊川·闊川의 맑았던 물을 마르고 더럽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現實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慶州市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주시민에 一半의 原因이 없음은 아니나 더 큰 원인은 政府政策의 貧困에서 찾아야 한다. 즉 慶州의 地上·地下 도처에 있는 遺蹟에 대해 얼마나 研究하고 保存하려는 配慮가 있었는가를 돌이켜 볼 때 실로 한심하기 이룰 데 없다. 최근에 야기된 가장 한심스러운 일은 競馬場의 설치와 京釜高速電鐵의 慶州通過이다. 이는 慶州 新羅文化의 死活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비롯한 重症의 진단은 章을 바꾸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3. 重症의 診斷

앞에서 보았듯이 新羅千年의 古都에 남겨진 新羅文化의 향기는 신라가 멸망한 뒤에 해가 갈수록

破壞를 거듭하였고, 그 속도는 최근에 이르러 급격히 늘어나 그야말로 重患者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現代文明이 발달되면서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慶州의 遺蹟을 보존하기 위하여 當局은 文化財法을 만들고 이 법에 근거하여 많은 수를 文化財로 指定하는 일을 最善의 保存策으로 여겨 왔다. 指定된 文化財는 그 財産의 所有主가 누구이건 保存을 위하여 財産權 行使에 많은 제한이 가해졌다. 그 결과 그 文化財의 보존은 이루어졌지만 그보다도 더 큰 市民의 피해의식이 고조되었고 자기 고장,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꽃피웠던 新羅文化에 대한 愛好心과 自負心 그리고 그 後裔로서의 矜持에 결정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는 文化財가 오히려 生存에 방해가 된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政策貧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여러 방향으로 파급되어 자랑스러운 祖上들의 偉大한 文化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게 되었다. 그래서 慶州市民은 오히려 競馬場이 설치되고 高速電鐵이 달려 經濟的으로 윤택해지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당연한 순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경마장과 고속전철의 설치는 慶州의 자랑이요 世界가 주목하는 新羅文化의 破壞라는 高價의 댓가를 지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競馬는 돈을 거는 도박의 성격이 농후한 사업이지 단순한 체육이 아니며, 따라서 돈에 수반하는 각종의 위락시설이 증가하게 될 것이지 그 수입이 新羅文化의 宣揚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京釜高速電鐵의 慶州通過 이유는 “공업도시인 포항·울산 등” 지역의 이용이 많을 것이고 “경제성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결국 經濟性 추구에 文化는 밀려난 격이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는 경주에서의 승객은 공업도시의 승객에 의해 압도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新羅의 文化는 民族文化의 母體로서의 尊嚴性에서 서울랜드와 같은 관광자원의 하나로 價値轉落하고마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경마장의 설치는 꼭 경주가 아니면 안될 이유가 없으며 포항·울산의 공업도시의 인구수송을 위해 경주의 文化財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경주의 방문객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단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말이 달리고 열차가 바람같이 달리며 高層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네온사인 휘황하게 돌아가는 유흥이 난무하는 곳에 千年古都의 神秘는 사라질 것이고 傳統과 浪漫은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100년을 못가서 찬란하였던 新羅의 文化는 忘却의 그늘로 사라져 버리고 自尊도 自矜도 없는 가난한 市民이 될 것이다.

#### 4. 重病의 治療

이제까지 지나치게 절망적인 말만 되풀이 하였으나 이러한 重病을 치료하는 처방으로는 政府의 巨視的 眼目에 의한 적절하고 진취적인 施策과 아울러 慶州市民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愛鄉心 밖에 없다. 17개 學會가 建議한 內容에는 이상의 모든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고 1995년 4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도 다시 한번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994년 12월에 제출한 건의서에 대한 有關기관

의 회신도 접수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東問西答式이었으며 건의의 要點을 피한 無誠意하고 高踏的인 것이어서 우리의 건의에 대해 誠意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雅量을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잘못 되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讓步하는 일은 爲政者의 기본태도이며 爲政者는 그러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성명서에서 주장하였던 우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 ① 경주의 신라문화는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
- ② 경주의 신라문화는 천년에 걸쳐 그곳에서 이어온 신라인의 예지와 경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③ 경주의 신라문화는 이제 경주만의 것도, 대한민국만의 것도 아닌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인 문화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④ 경주에 설치하려는 競馬場과 京釜高速電鐵의 慶州通過는 新羅文化에 致命的인 손상을 입힐 것이므로 이러한 막대한 댓가를 치루면서까지 강행할 명분이 없다.
- ⑤ 爲政者나 慶州市民은 目前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近視眼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
- ⑥ 先史時代 이후 수천년 이어온 文化의 證表가 지금 世代에 살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크게 손상되었다는 비난과 수치를 역사에 남길 수 없는 일이다.
- ⑦ 이러한 이유에서 競馬場은 경주 이외의 곳으로 옮겨야 하고 京釜高速電鐵은 大邱에서 釜山으로 直行하여야 한다.
- ⑧ 新羅文化의 保存과 慶州市民의 經濟的 發展이라는 상치되는 두 문제를 해결하는 方案으로, “新慶州의 建設”과 “古都保存法의 制定”을 長期計劃 아래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當局은 넓은 視野로 먼 앞날이 내다보이는 施策을 펴야 할 것이며 慶州市民은 지금의 피해를 위로는 祖上의 얼을 傳承하고 아래로는 子孫들의 榮譽를 위한 投資로 생각하기 바라며, 이것이 國民의 바램이요 17개 學會의 衷心임을 확신한다.

1995년 5월 8일